

7월 25일(월) / 삼하4-6

▶**내용요약:** 사무엘하 4장은 사울의 집안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몰락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이후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아나를 처형한다. 5장에서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점차 강성해진다. 6장은 사울 시대에 잊혀진 법제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옷사의 죽음과 오벧에돔의 집에서 3달을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이를 기뻐한 다윗은 찬양하고 춤을 춘다.

▶**질문:** 아비나답의 아들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궤에 손을 대어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6장)

▶**생각하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그는 왕의 체면도 뒤로하고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자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7월 28일(목) / 대상4-6

▶**내용요약:** 4장은 2장에서 이미 소개된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는 다른 계통의 자손들이 소개된다. 이어 시므온의 자손들도 기록된다. 5장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을 기록한다. 이들은 우상숭배를 범해서 결국 앗수르 왕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당한다.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말은 사역, 그리고 거주지가 기록된다.

▶**질문:**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게 되었는가?(5장)

▶**생각하기:** 역대상 4장은 야베스와 그의 기도를 소개한다. 말씀은 야베스를 평가하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4:9)고 한다. 이처럼 그가 귀중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셨음을 알게 된다. 기도의 해를 맞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한 존재들이 되자!

7월 31일(일) / 대상14-16

▶**내용요약:** 14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한다. 다윗은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정이 번성하였으며 오랜 대적인 블레셋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다. 15장은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옮겨온다. 이전과는 달리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다윗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7월 26일(화) / 삼하19-21

▶**내용요약:** 19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므비보셋의 진심을 살피며 바르실래의 친절에 대해 보상한다. 20장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지만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종식된다. 21장은 다윗 이전 사울 왕이 지었던 죄 때문에 3년의 기근이 발생한다.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이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나열된다.

▶**질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를 공제함으로 다윗이 마음의 빚을 졌던 길르앗 사람은 누구인가?(19장)

▶**생각하기:**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음에도 이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과 신실함을 유지한다. 승리에 모두 즐거워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것에 아버지로서 상심했으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에게 어떤 복수도 하지 않는다. 이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성실히 갚는다. 겸손하고 신실한 다윗의 모습이 도전이 된다!

7월 29일(금) / 대상7-9

▶**내용요약:** 7장은 앞에서 나오지 않은 6지파,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된다. 8장은 7장에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보다 상세히 소개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족보를 언급하기 위함이다. 9장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으로 사로잡혀 갔더니”(9장)

▶**생각하기:** 역대기 시작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에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춤추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16장은 하나님의 궤가 성공적으로 옮겨지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나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기브온에 마련한다.

▶**질문:**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흠으셨다는 뜻으로 불렀던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14장)

7월 27일(수) / 대상1-3

▶**내용요약:** 역대상 1장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과 예서의 후손까지의 족보가 기록된다. 2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룬 야곱의 열두 아들이 소개되면서 특히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나열된다. 3장은 다윗의 자손들이 기록되는데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잡혀가는 여고냐의 자손들의 이름까지 볼 수 있다.

▶**질문:** 다윗의 맏아들로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3장)

▶**생각하기:** 역대상 2장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를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다윗 왕조의 직계 조상으로 언급한다. 불륜으로 낳은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7월 30일(토) / 대상10-13

▶**내용요약:** 10장에서부터는 9장까지 기록된 족보가 끝나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다. 10장은 사울왕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 그를 따랐던 용사들이 그들의 공적과 함께 기록된다. 12장은 다윗의 용사들이 지속적으로 기록된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일어난 옷사의 죽음을 기록한다.

질문: 다윗이 여부스를 칠 때에 가장 먼저 올라가 싸움으로 다윗 군대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11장)

▶**생각하기:**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이끌게 된다.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 11장과 12장에서 용사들로 언급되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와 함께할 좋은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4:2). 그래서 그는 옮겨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브온에 두고 사독과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한다. 우리도 어떤 일에서든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